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조작하다
오송회(五松會) 사건



5 · 18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들어선 군부는 1980년 7월 30일 이른바 ‘7·30조치’를 단행하여 새로운 군부정권을 위한 교육통제 장치를 정비하는 한편 교사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다. 5공화국 시절 문교부(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전담실’을 설치해 교육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보안위원회’를 구성해 사립 중고교 교사채용 때 과거 전력 등을 조사하여 채용 여부를 판정했다. 반공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키워주는 교사들에게는 강제 연행, 장기 구금, 고문 등을 통해 좌경용공조작을 자행하여, 다수의 교사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신군부에 의한 폭정이 기승을 부리던 1982년,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9명과 전직 교사 1명은 용공서적을 탐독하고 북한 방송을 청취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좌경 의식화교육을 하는 등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5공 정권의 용공조작 사건 중 대표적인 예로 기록되고 있는 이른바 ‘오송회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사들을 고문해 용공 지하조직을 만든다

군산제일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인 이광웅, 박정석 등 5명은 평소 우리 사회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대한 불평불만을 품고 사회주의를 동경해온 자들인 바, 이들은 1982년 4월 19일 오후 4·19 위령제를 빙자하여 학교 뒷산에 모여 소위 ‘오송회’라는 용공 지하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체제 전복과 사회 혼란을 야기 시킬 목적으로 조직 확대를 꾀하여 동료 교사와 제자 등 주변 인물 다수를 포섭하였으며, 불온서적을 탐독하고 북괴 방송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는 등 암약을 해오다가 수사

진에게 적발되었다.

경찰은 이들 5명 외에 이들을 배후에서 조성한 모 방송국 간부 조성용과 교사 3명 등 일당 9명을 구속하고 기타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일방타진의 개가를 올렸다.

라는 내용의 경찰 수사 결과가 관련자들의 사진과 도표를 곁들여 TV로 전국에 보도되었고, 중앙과 지방 일간지에는 사설과 해설 기사 등으로 대서특필되었다. 폭압적인 독재 치하, 암울한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오송회 사건으로 인해 현직 교사와 방송인 등 연루자 9명은 7년에서 1년까지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고 그들 모두 영장 없는 불법 연행,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혹독한 고문과 물증 없는 자백 강요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다.

이들은 88년과 99년 두 차례 교육부에 의해 특별채용 형식으로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일부는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의 눈초리를 감당하기 힘들어 교단을 등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2002년 1월 18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오송회 사건 관련자 7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민주화 열망을 시로 표현하다 92년에 돌아가신 이광웅 씨와 황운태 씨는 서류 제출이 늦어 심사에서 제외됐다.

1982년 여름 군산제일고등학교 출신 제자들이 박정석 교사의 집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에게 가서 받은 복사된 시집 『병든 서울』을 놓고 내렸다. 『병든 서울』은 1987년 6월항쟁 직후에 해금되어 현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당시에는 판금조치되어 있던 시집이었다.

그 시집에는 ‘인공’ 운운하는 구절이 실려 있었는데 이를 보고 깜짝 놀란 안내양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참되게 가르치려 했던 이들에게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폭력을 어찌 주워 담을 것인가!

의 무죄를 다시금 주장하게 되었다.

“2심 판결은 찌는 듯한 7월의 더위 속에 내려졌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 9명 모두에게 1년에서 7년까지의 실형이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판사들은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고 가족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문정현, 문규현 두 신부님은 성직자의 품위도 망각한 채 의자 위에 올라서서 울부짖었습니다.”

1988년 6월 군산제일고등학교에 복직된 채규구(51, 군산 진포중학교 교사) 씨는 현직 교사들을 1개월 가까이 불법 감금했기 때문에 경찰이 자신들을 무혐의 처리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한다.

“독재정권은 민주세력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정법상 좌경용공 분자로 몰아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교직사회가 상대적으로 순응적이고 보수성이 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교직사회를 철저히 장악, 저항세력의 성장을 제지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오송회라는 사건을 날조했다고 짐작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필요하면 만들어냈습니다.”

적당히 엮어서 엄벌에 처한다

사건 이후 복직되기까지 6년여 세월 동안 채규구 씨는 교사이기를 포기하거나 고향을 떠나야 할 유혹과 상황에 여러 번 처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군산에서 복직하여 교단에 다시 서기를 고집한 이유를 그는 참다운 선생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오송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오자 끊임없는 고난이 뒤따랐지만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찬과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건 당시 나는 참교육이 무엇인지, 교사다운 교사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앞에 어떤 민족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옥중에서야 비로소 한민족 지상과제인 통일, 조

국 민주화, 참다운 인간해방 등에 관하여 확연하게 깨달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짐했습니다. 내가 교단에 돌아가기를 고집했던 두 번째 이유는 군산제일고 졸업생들에 대한 사죄를 위해서였습니다. 악랄한 검찰은 사제지간의 윤리까지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스승을 고발하기 위한 증인으로 제자들을 법정에서 세웠고, 심지어 당시 재학 중인 어린 학생까지 동원하였습니다. 스승을 고발하기 위한 증인으로 불러내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떠는 한 제자의 모습을 보며 통탄과 분노를 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감 뒤에 본격적으로 운동권으로 살아왔다는 조성용 씨는 할 수 있는 일이 민주화운동밖에 없었다고 한다.

“내가 왜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기가 막힐 뿐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였죠. 운동시간에 이 사건으로 들어온 교사들을 만나서 오송회라는 조직이 정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오송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법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인간의 기회와 안전과 행복을 끝장내는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는 법이 아니라 간첩을 만드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목숨을 걸고

분단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분단을 뛰어넘는 한 편의 시를 쓰고 싶어 했던 이광웅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금강 하구 쪽 돌맹이 하나로 우뚝 서있는 시비에 그는 ‘뭉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하라고 이야기한다.

이 땅에서/ 참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오송회 사건’ 교사들이 재직했던 군산제일고등학교

글 / 서성란

1967년 익산 출생.
1996년 중편소설 『할머니의 평화』로 실천문학 신인상 수상.
장편소설 『모두 다 사라지지 않는 담』과 소설집으로 『방에 관한 기억』 등이 있다.

사진 / 노순택

다큐멘터리 사진가(<http://nohst.simspace.com>)